

# 국내 海洋산업의 새로운 지평 열어

## 2008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폐막

국내최대의 해양레저축제 2008 경기국제보트쇼 &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6월15일 폐막식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첫 대회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개막전부터 아시아 3대 보트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이번 대회에서는 1천320건 2천400여 원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180건 약 600억원의 계약 및 현장판매를 기록, 국내 해양레저 산업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6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 황무지나 다름없는 국내 해양산업의 현주소 등의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회 결과는 'Fantastic'란 단어 그 자체였다. 당초 목표치의 3배 반이 넘는 관람객수에 경기도가 높았고, 해외 바이어들이 늘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보트의 매력에 관람객들은 탄성을 연발했고,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요트경기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2008 경기국제보트쇼가 남긴 상담건수와 계약 및 현장판매의 잠정 집계 기록이다. 국내 해양산업의 시장규모가 연간 약 100억원 이니가 무려 6배에 달하는 거래가 단 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기도가 이번 대회를 성공적이라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경기국제보트쇼를 준비하면서



6월15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리고 있는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에서 결승전이 끝난 후 세바스찬 콜(프랑스)이 우승트로피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받은 후 환호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행사 개최 이유로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를 꼽았다. 5일째 근무의 확산과 소득증가로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 지사의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당초 경기도가 목표한 관람객수는 10만명이었으나 보트쇼는 개막 이틀만에 이러한 목표치를 가볍게 통과했다. 지난 5일 동안 총 35만명이 행사장을 방문하면서 무려 목표치의 3배가 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해양레저의 즐거움

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 역시 이번 행사가 거둔 성과중 하나다. 호주에서 온 베일 임포트(Vail Import, 보트, 요트 제조)의 데이비 프레이저(David Fraser) 대표는 "학생과 어린이들의 참가가 많다는 것이 다른 보트쇼와 가장 다른 점"이라며 "이들의 자연스러운 체험이 한국 해양레저산업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가 해양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자체라는 브랜드 구축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

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 역시 이번 행사가 거둔 성과중 하나다. 호주에서 온 베일 임포트(Vail Import, 보트, 요트 제조)의 데이비 프레이저(David Fraser) 대표는 "학생과 어린이들의 참가가 많다는 것이 다른 보트쇼와 가장 다른 점"이라며 "이들의 자연스러운 체험이 한국 해양레저산업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 역시 이번 행사가 거둔 성과중 하나다. 호주에서 온 베일 임포트(Vail Import, 보트, 요트 제조)의 데이비 프레이저(David Fraser) 대표는 "학생과 어린이들의 참가가 많다는 것이 다른 보트쇼와 가장 다른 점"이라며 "이들의 자연스러운 체험이 한국 해양레저산업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세계요트대회 소방안전 빛났다'

## 도 소방본부, 물에 빠진 사람 등 28명救助

35만명의 방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경기국제보트쇼·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대형 안전사고 없이 성공리에 막을 내리려 경기소방의 행사장 안전유지가 다시 한 번 빛이 났다.

6월12일엔 KBS 공개방송 무대를 설치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대기중이던 소방공무원들이 소화기로 신속하게 진압해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뻔한 큰 피해를 막았고, 6월14일엔 자원봉사자가 교통통제 중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구급대가 신속히 응급처치를 실시해 병입으로 이송하는 등 숨은 곳에서 우렁각시 역을 토크해 해냈다.

이외에도 해상 체험 중 키누가 뒤집혀 물에 빠진 사람과, 갯벌 체험 중 발바닥에 이물질이 박힌 학생 등 순간순간 아찔한 경험을 했던 각각각색의 관람객들은 신속하고 친절할 119의 도움을 받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35만명의 방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경기국제보트쇼·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대형 안전사고 없이 성공리에 막을 내리려 경기소방의 행사장 안전유지가 다시 한 번 빛이 났다.

최진중)에 따르면 행사기간 동안 총 28명의 응급환자를 치료하거나 안전조치 했으며, 바닷가에서 치러진 축제인 만큼 수난사고와 대회장의 소방안전을 위해 하루 평균 1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투입시켜 물샷 틈없는 안전사고 예방 작전을 운

영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기국제보트쇼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지만,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큰 성공을 거뒀다. 앞으로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사랑의 약손 8년째 수지침 무료봉사

## 녹양동 사랑의 약손 봉사대, 2천700여명에게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센터는 주민을 위한 사랑의 약손 수지침 봉사를 8년째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녹양동 사랑의 약손 봉사대는 2008년 처음 2명의 주민들이 결성,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은 맴이 매주 2회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무료봉사 수지침을 8년째 실시한 결과 2천7백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했다.

특히 사랑의 약손 봉사대는 항상 주민들에게 시술 후 따뜻하게 손을 주물러 주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말도 잊지

않아 더욱더 주민들에게 진한 감동과 희망을 북돋아 주고 있다.

녹양동에 거주하는 김모(75세, 여) 할머니는 두통으로 6년 동안 고생을 하다 무료라고 해 한번 해 보자 했던 것이 이제는 몸이 완쾌되고 힘이 가벼워져 젊어진 기분이라며 고마워 했다.

이병우 녹양동장은 매주 2회씩 무료로 봉사하는 사랑의 약손 봉사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봉사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센터는 주민을 위한 사랑의 약손 수지침 봉사를 8년째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 취약계층 거주주택 방충망 설치사업 큰 호응

## 의정부시보건소 독거노인·단독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정부시보건소는 올해부터 독거노인, 단독장애인 등 취약계층 거주주택을 방문하여 창문 등에 방충망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년 방역소득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건물외벽, 화장실 등의 방문소득을 실시하고 가정용 살충제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부터는 추가로 방충망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위생해충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어 전염병 예방은 물론 해충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하천변, 쓰레기장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득은 물론 방역사각지대인 소외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역

사업을 더욱 확대추진할 계획이며 방충망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모기매개 전염병인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도 모기유충구제, 민·관·군합동방역소득, 전염병신고센터운영 등에 총력방역체계를 가동중에 있으나, 시민들도 파주, 연천, 고양, 김포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정용살충제 비치, 모기장 설치 등 개인방어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충망 설치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은 보건소(828-4552)로 신청하면 되며, 현장조사후 설치가 가능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불량 규제 풀어 대한富國 만든다"

## 경기도, '수도권규제 해법의 입문서' 책자 배부

경기도는 수도권규제를 분야별로 종합 정리한 이야기책 '불량규제 풀어 대한富國 만든다'를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함께 제작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언론인, 학술단체 및 경제단체 주요인사 등 경기도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배부한다.

책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과 규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규제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글로벌 관점에서 수도권규제는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하여 대도시권의 전략을 강화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정책프레임워크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종합 테마파크형 레고랜드가 국내에서 독일로 투

자지를 옮기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첨단기업을 공장 신·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에 뒤쳐진다고 불만을 수도권규제시대를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개혁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 ▶대도시 관리계획 ▶발전전략 ▶해외도시와의 경쟁 ▶규제개혁 등 5가지 발상의 전환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수도권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의 초석을 다지는 길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책은 일 반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수도권규제 해법의 입문서"라고 말하고, "수도권규제 개혁의 입문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입법과정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조사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청소년기 식습관 개선 영양간식반 교육

##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전통음식 계승 발전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는 잊혀져 가는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패스트푸드의 범람으로 위협받고 있는 청소년기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6회에 걸쳐 영양간식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미자 화채, 깨찰편, 메밀산차, 숙굴레, 떡케이크 등 옛날 선조들이 즐겨먹던 간식과 음료를 소개하고 있어 각종 식품 첨가물에 노출되어 아토피와 각종 피

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본 안숙(35·의정부시 신곡동)씨는 만드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고 맛도 좋아 놀라웠으며 따뜻하게 찌운 떡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생겼으며 앞으로는 아이들의 생일에 떡케이크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는 잊혀져 가는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청소년기 식습관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6회에 걸쳐 영양간식반 교육을 실시했다.

# 의정부예술의전당 운영혁신부문 1위 차지

## 2008전국문예회관 우수운영 사례발표회에서

지난 9일부터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에서 개최된 2008전국문예회관 우수운영 사례발표회에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운영혁신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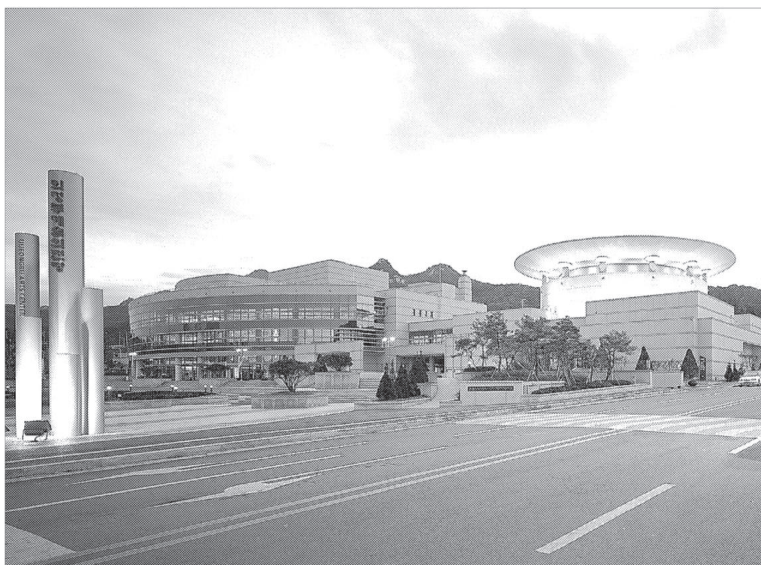
의정부예술의전당은 2001년4월 개관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시스템은 더 이상 변화하는 대내외적 문화환경과 치열해진 경쟁주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에 한계가 있어 김문영 의정부시장이 재단인 지칭으로 전환하는 운영혁신의 모색을 하게 되었다.

조직의 경직성이 강한 공단 조직보다는 일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재단법인형태의 운영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창의적인 예술경영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5일 재단법인으로 전환 후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몇 가지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극장 경영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조성, 둘째 시민 밀착형,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의 특성화, 셋째 시설 리모델링으로 시민편의 제공, 넷째 전문인력 보강과 전문예술법인 지칭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을 이루어 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법인 전환



지난 9일부터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에서 개최된 2008전국문예회관 우수운영 사례발표회에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운영혁신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탄력적인 예산운용과 신속한 사업추진, 창의적인 예술경영으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기획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왔다.

특히 의정부예술의전당만이 선보일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테마가 있는 4대축제 개최 등 타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아이덴티티 차별화와 특성화를 꾀하여 왔다.

이러한 의정부예술의전당의 활동과 성과들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

평을 받았으며, 일부 참석한 문예회관에서는 의정부예술의전당 운영혁신에 대한 벤치마킹을 문의하기도 했다.

이진배 사장은 앞으로도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금보다 더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아울러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극장이 되도록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